

# 고루(鼓樓)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병사(兵舍)와 미창(米倉)이 즐 지어 선—고대의 낭만에 잠긴 기쿠치성(鞠智城)



## 하이즈카(灰塚)

유일하게 성 전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동시에 북쪽의 야호가타케산, 남쪽의 긴포잔산, 동쪽의 아소 외륜산 등 360도 대형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높직한 산입니다. 테이블과 벤치가 마련된 전망대도 있고, 그 정면에는 '부동암'이라 불리는 큰 바위가 바라보입니다.



## 조자야마 전망광장 휴게소

야마가시 기쿠카마치요나바루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요나바루 조자 전설'에서 유래된 높직한 산에 위치한 휴게소입니다. 나라시대(710~794)의 신덴(寢殿)풍으로 세워진 건물로 그 주변은 전망광장으로 정비되어 휴식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온고창생관(溫故創生館)

기쿠치성이 세워진 시대와 그 역할에 대하여 전시와 영상을 통해 배우는 시설입니다. 2층에는 공원 전체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개관시간/9:30~17:15  
 (입관은 16:45까지)  
 휴관일/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12월 25일~1월 4일  
 입장료/무료

기쿠치 성터는 야마가시 기쿠카마치요나바루 지역을 중심으로 기쿠치시 호리키리 지역에까지 펼쳐진 드넓은 성터입니다. 내성(약 55ha)과 외부둘레 지구(약 65h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굴 조사는 196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72동의 건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1994년부터는 구마모토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무기를 보관했다?  
**이타쿠라(板倉)**  
 전체크기 폭 6.9m, 길이 12.0m에 내부 약 5.5m×약 7.2m의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식 건물로 기둥에 관 홈에 판자를 끼우는 '오토시하메(끼워넣기) 기법'의 벽이 특징입니다. 지붕은 가야부키(초가지붕)입니다.



사키모리(북부 규슈를 지키던 병사)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병사(兵舍)**

전체크기 폭 7.8m, 길이 26.6m에 내부 약 5.5m×약 18.2m의 건물로 벽은 흙벽, 바닥은 흙마루로 지어졌습니다. 지붕은 가야부키(초가지붕)이며, 벽에는 밀이 울리는 방식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50명의 병사가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량을 보관했던  
**미창(米倉)**

전체크기 폭 7.2m, 길이 9.6m에 내부 약 5.5m×약 7.2m의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식 건물로 단면이 삼각형인 재료를 세로와 가로로 교대로 쌓아 올린 벽인 '아제쿠라 양식'이 특징입니다. 지붕은 가야부키(초가지붕)이며, 건물 가장자리에는 쥐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네즈미가에시'라 불리는 판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팔각형 고루(鼓樓)

일본내 고대 산성으로서는 최초로 발견된 팔각형 건물입니다. 3중 구조의 건물로 직경 90cm의 축을 중심으로 기둥이 세 겹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높이는 15.8m로 지붕에는 총중량 76톤의 기와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 서울 근교의 이성산성에서 동일한 양식의 건물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쿠치성(서기698년경)상상도

※붉은색 글자의 건물은 복원 정비가 끝남  
 자료제공: 海出書房新社 「도성 구마모토현의 역사」에서 일러스트 板垣誠